

석 문 주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진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교육 실태

석 문 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윤진

# 인 준 서

윤 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소재 6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대학을 졸업한 주부로 직업과 성별 면에서 상당히 편중된 결과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도 16주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는 일률적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수업도 강의계획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으로,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절반 정도만이 수업 시간에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강사의 매체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강사는 열의나 수업 시간 준수 등의 질문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인 ‘강사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중요한 자질로는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의 수강생이 별도의 시험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선발 조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선발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강생의 약 70%는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의 진행을 들었다. 즉 수강생들은 수준에 따른 수업을 원하면서도 선발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강좌의 편성시간과 교육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강의실과 연습실 등 시설에 대해서는 불만족 하고 있었다.

다섯째, 수강생에 대한 학업 평가는 약 60%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경우도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질 높은 수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좀 더 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수강생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과 프로그램 면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앞서서 교육 시설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나타냈으나 잠재적으로는 강의실과 연습실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창 부분과 기악 연주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 하고 있으며 중급반의 신설과 같은 수준별 수업과 심화 수업에 대한 요구도 일부 조사되었다.

일곱째, 연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령간의 요구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많은 부분에서 연령 집단간의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제한점	6
4. 선행연구 고찰	6
II.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의 의의	12
2. 평생교육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16
3.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20
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 분석	33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41
2. 연구 도구	42
3. 자료 통계처리	41

IV. 연구결과 분석	43
1. 결과 분석	43
2.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	72
3. 요약	80
V. 결론 및 제언	84
1. 결론	84
2. 제언	86
참 고 문 헌	89
ABSTRACT	
부록	
1. 설문지	

##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대학 평생교육원 현황	20
<표 II-1> 학교별 일반과정 음악 프로그램 개설 교과목	34
<표 II-2> 송실대학교 학점은행제 과정 개설교과목	39
<표 III-1> 연구 대상	42
<표 III-2> 설문지 내용	43
<표 IV-1> 성별	47
<표 IV-2> 연령	47
<표 IV-3> 최종 학력	48
<표 IV-4> 직업	49
<표 IV-5>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	49
<표 IV-5-1>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	50
<표 IV-5-2> 수강한 과목의 종류	50
<표 IV-6>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 인원	51
<표 IV-7> 현 강좌의 편성 시간	51
<표 IV-8>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52
<표 IV-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	53
<표 IV-10>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의 유무	53
<표 IV-10-1>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54
<표 IV-11> 강의 내용의 이해	54
<표 IV-12> 강사의 수업 방법	55

<표 IV-13> 강사의 수업 형태	55
<표 IV-14> 강사의 수업매체 활용 정도	56
<표 IV-15> 수업에 활용한 매체	57
<표 IV-16> 교육내용의 만족 여부	57
<표 IV-17> 강사의 열의	58
<표 IV-18> 강사의 수업시간 준수	58
<표 IV-19> 강사에 대한 학습 도움 요청의 용이성	59
<표 IV-20>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강사의 노력 여부	59
<표 IV-20-1> 흥미를 높이기 위해 강사가 사용한 방법	60
<표 IV-21> 강사의 중요한 자질	61
<표 IV-22> 수강생 선발 조건의 유무	61
<표 IV-23> 수강생의 선발 방법	62
<표 IV-23-1> 선발 조건의 필요성 여부	62
<표 IV-23-2> 선발조건이 필요한 이유	63
<표 IV-23-3> 선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63
<표 IV-24> 수강인원의 적절성	64
<표 IV-25> 수업 시간의 적절성	64
<표 IV-26> 편성 시간의 적절성 유무	65
<표 IV-27> 편성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65
<표 IV-28> 원하는 편성 시간	66
<표 IV-29> 적절한 교육 시설의 제공 유무	66
<표 IV-30> 대학 내의 시설 활용 유무	67
<표 IV-30-1> 활용하고 있는 대학 내의 시설	67
<표 IV-30-2> 가장 필요한 시설	68

<표 IV-31> 대학 내 시설 활용의 용이성	68
<표 IV-32> 교육비의 적절성	69
<표 IV-33> 수강생 평가의 유무	69
<표 IV-33-1> 평가의 방식	70
<표 IV-34> 강사 평가의 유무	71
<표 IV-34-1> 강사 평가시의 항목	71
<표 IV-35> 학습 의욕의 증가 유무	72
<표 IV-36> 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	72
<표 IV-36-1> 다시 참여하지 않는 이유	73
<표 IV-37> 원하는 개설 과목	73
<표 IV-38> 참여해서 좋았던 점	74
<표 IV-39> 문제점	75
<표 IV-40> 개선방안	75
<표 IV-41> 연령별 분포	76
<표 IV-42> 평생교육 참여 이유	77
<표 IV-43> 교육과정	78
<표 IV-44> 강사의 자질	79
<표 IV-45> 수강생의 선발	80
<표 IV-46> 교육시간	81
<표 IV-47> 교육환경	82
<표 IV-48> 교육비	83
<표 IV-49> 평가	83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앨빈 토플러는(A.Toffler, 1928)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이전의 시기인 산업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며, 산업 사회 시대에 요구되던 지식과 학력, 경험을 갖춘 사무 노동자(white collar)형 인간보다 창의성과 자발성을 갖춘 지식 노동자(golden collar)<sup>1)</sup>형 인간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 이에 반해 낮아진 정년의 연령과 여가 시간의 증대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식의 수명이 약 4년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는 달리, 학교는 유연하지 못한 교육과정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7~8년에 한번 바뀌는 교육과정의 변화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어렵다.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sup>2)</sup>으로 정의되는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에 비해 융통성과 시사성, 실용성이 강하여 사회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교육<sup>3)</sup>으로 변화가 심한 현대사회에 필요한 교육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sup>4)</sup>시

---

1) 생산 노동자인 블루 칼라와 사무 노동자인 화이트 칼라에 이어 등장한 용어이다. 디지털(digital)과 지식 계급을 뜻하는 리테라티(literati)의 합성어인 디제라티(Digerati: 새 밀레니엄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사회의 주역) 계급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는 지식 노동자를 말한다.

2) 권이중·김승호·소창영 외, 『평생교육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22.

3) 립영철·립광영,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1), p.37.

켜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서 실버 교육으로서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음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는 했으나,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기원전 중국의 공자(孔子)는 「예기」(禮記)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음악의 내재된 질서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끼치므로 바른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장면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도 다비드(David)와 사울(Saul)왕을 음악으로 정복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sup>5)</sup> 이처럼 음악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해왔다. 음악이 다양한 시대를 초월해 중요하게 다루어진 데는 인간이 추구하는 심미적 경험에의 욕구, 즉 음악을 통한 미적 경험의 추구를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음악에 반응하며 음악 경험을 통해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음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은 진정한 자아실현,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 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을 발견한다.<sup>6)</sup> 음악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도우며, 창의성과 자발성을 갖춘 지식 노동자형 인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부합한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가치는 현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1967년 열린 탕글우드 심포지움(Tanglewood Symposium)에서는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학교와 대학에서는 취학 전부터 성인, 평생 교육에 걸쳐 적절한 음악 프로그램을

---

4) 권이중·김승호·소창영 외, 전계서, p.36.

5)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 (서울: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1994), p.55.

6) Lenohard, C. and House, R.,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p.119.

제공해야 한다' 7)고 주장하며 음악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스웨덴 연구가들인 비그렌, 콜란, 요한슨 (Bygren, Konlaan, & Johansson)은 8년간의 연구를 통해 '문화적 행사에 참석하고 책이나 정기 간행물을 읽고 음악을 창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사망률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의 연구는 음악은 인간의 정신적인 면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8)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1998)의 음악 과목은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음악 과목을 선택하면, 좀 더 심화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있어야 할 음악이 개설되지 않거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교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심화 선택 과목으로 되어있는 음악 이론이나 전공 실기, 실내악 등은 우리나라 일반 고등학교의 여건에서는 시행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음악적 체험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음에도 실제 학교 현장의 여건상 학생들은 충분한 음악적 체험을 얻지 못한 채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생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는 제도 교육을 마친 성인들에게도 다양하고 균등한 음악교육의 환경을 제공하여

---

7)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전게서, p.30.

8) Hookey, M(2002). Adult Education. In Don D. Coffman (Eds),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pp.199-209.

성인들도 계속적으로 음악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인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삼는 대학은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문적으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대학의 좋은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기초 문해 교육에서 시작된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은 현재 300여 개의 대학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음악 프로그램 또한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개설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은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 비해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라든지, 강사의 자질문제, 학습 환경 등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 6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음악과 관련된 개설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첫째,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과 평생교육으로서 음악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음악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참여 프로그램

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자의 특성, 교육 욕구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소재 6개 대학- 단국대, 덕성여대, 상명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부설 평생교육원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3) 용어의 정의

### (1) 평생교육<sup>9)</sup>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단체의 조직화된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 (2) 대학 평생교육

성인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 기능, 즉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대학확장이나 대학개방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9)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연구에서 ‘평생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잠재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수강생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를 수강생으로 정의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지역 4년제 종합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중 음악교육과정이 개설된 6개 대학을 중심으로 2004년도 1학기 음악교육 프로그램만을 분석하였다. 개설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는 일반과정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전문가와 지도자 과정은 설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선행연구 고찰

이 장은 일반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논문을 서술한 후, 음악 평생교육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음악교육저널에 실린 논문을 고찰하였다.

김유신<sup>10)</sup>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 특히 여성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전문지식 및 기술향상, 개인적 교양함양의 측면에만 편파적인

---

10) 김유신,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목적과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교육목적과 교육프로그램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공동체적 의식 함양의 측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았으며, 여성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식과 관련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교육목적과 교육프로그램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공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편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태화<sup>11)</sup>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평생교육관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도출하였다. 첫째, 시민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수강료가 저렴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해야 할 일은 교육적 수준향상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시민의식이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정희<sup>12)</sup>는 초등학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심 평생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 시내 소재 평생교육 시범학교 3곳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

---

11) 송태화, 평생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2) 여정희,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중심 평생교육 요구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방법의 개발과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학교 중심 평생교육의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성은<sup>13)</sup>은 서울 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을 건물, 시설, 행정, 재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수강자 현황, 교수 현황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문헌 연구와 설문지를 통한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서울 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한상훈<sup>14)</sup>은 대학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학인들의 대학 평생교육을 보는 시각, 법적 타당성 등에 관련된 것들이 대학 평생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문제들을 규명하고 다음의 여섯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 평생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된 부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 평생교육의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재원을 받아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생교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교수원을 배치해 대학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 평생교육은 성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선영<sup>15)</sup>은 서울지역 17개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음악교육 현황을

---

13) 윤성은, 서울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교육연구』 16, (1998).

14) 한상훈, 대학 평생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22, no. 2, (2001).

15) 노선영,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조사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둘째, 기관내의 행정적인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담당자들이 대학의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통해 짜임새 있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석주<sup>16)</sup>는 사회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사회 음악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의 음악적 의식, 행동 양식, 요구 등을 알아보고 음악적인 배경과 음악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들이 그렇지 못한 성인들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음악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음악청중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음악적 성향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하고 균등한 음악교육의 기회가 정규중등 과정을 마친 성인들을 위해 사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핵(Haack)과 스미스(Smith)<sup>17)</sup>는 그의 논문에서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평생교육의 전 과정, 활기 있는 교육과 새로운 시각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평생교육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명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형성하는 자기 평가, 전문적인 성장, 목표 설정, 목표 분석, 우선 순위 정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은 다양한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많

---

16) 이석주, 사회음악교육을 통한 성인의 음악적 성장에 관한 연구: 청중 개발을 위한 음악 감상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17) Michale, V. Smith & Paul, Haack, The Long View of lifelong learning, 『Music Educators Journal』 87, no.3 (2000) : 28-33.

은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주장하며, 교육적 입장에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평생학습과 주기적인 자기 평가는 직업에 대한 열정을 소진시키지 않고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햄만(Hamann)<sup>18)</sup>은 학생지도, 좋은 지도, 평생교육, 자기 성찰과 분석 등 다양한 수준과 주제에 걸친 논문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에 관한 논문으로는 헉과 스미스의 '평생학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 (*The Long View of Lifelong Learning*)' 을 소개하고 있다. 햄만은 이 글을 통해 평생교육이 내부적으로는 교사 자신의 배움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서 결국 가르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코프만(Coffman)<sup>19)</sup>의 성인교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성인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서술한 후 성인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문헌들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음악에서의 성인 학습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성인발달의 기본적 개념에서는 성인기의 특징과 인지발달, 심리적 발달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성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성인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는 성인기의 음악적 발전에 관한 이론과 성인들의 음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서의 성인 학습 부분에서는 성인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과 교수·학습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음악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성인 음악 연구의 대부분

---

18) Donald L. H., Getting the Big Picture, 『Music Educational Journal』 87, no.3 (2000) : 18-22.

19) Hookey, M.(2002). Adult Education. In Don D. Coffman (Eds),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Reston, VA: National Asssocation for Music Education, pp.199-209.

이 음악 참여와 커리큘럼 개발 영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을 연구하거나 성인들의 음악발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 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평생교육의 의의

초기의 평생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하류 계급에 대한 기초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이라든지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졌던 것에 반해 현대의 평생교육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좀더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평생교육은 오늘날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기존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그 역할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할 새로운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1)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프랑스어의 ‘*L’education permanente*’ 이고 이를 번역하면 영구교육 또는 항구교육이 된다. 영어로 ‘*lifelong education*’ 이라고 번역한 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평생교육’ 이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다.<sup>20)</sup>

랭그랑(Lengrand, 1910)과 데이브(.Dave, 1910)는 과거와는 다른 현대적 의미의 평생교육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했으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랭그랑은 평생교육을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의 통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평생교육은 인간이

20) 엄주정·김정호, 평생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2001), p.4.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이념을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유아 교육-아동교육-청년교육-성인교육-노인교육 등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통합되고 가정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 등 수평적으로 통합된 교육을 말한다(Lengrand, 1976).<sup>21)</sup> 데이브는 평생교육을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연장·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2)</sup>

한편, 장진호는 평생교육을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아가는 인간화교육(人間化教育)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종서 외, 1996 재인용).<sup>23)</sup> 또한 오늘날 교육의 의미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축소되어 마치 학교 교육과 교육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교육이라는 단어 앞에 굳이 ‘평생’이라는 접두어를 붙임으로써 이렇듯 편협하고 왜곡된 교육을 다시 원형의 본질로 회귀시키고자 강조한 개념이다.<sup>24)</sup>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은 크게 두개의 축, 즉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교육의 수직적 통합이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항구적이고도 계속적인 학습’을 의미하며, 교육의 수평적 통합이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의 연계를 의미한다.<sup>25)</sup>

---

21) 림영철·림광영, 전게서, p.24, 재인용.

22) 권이중·이상오, 『평생교육-이론편』,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23.

23) 림영철·림광영, 전게서, p.24, 재인용.

24) 권이중·이상오, 전게서, p. 11.

25) 권이중·이상오, 전게서, p.26.

## 2)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는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동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이 요구되었으며, 학교 교육이 일부 중상류 계층에게 많이 간다는 교육의 역기능과 제한성이 있었으므로 종래의 교육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였다. 교육은 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교가 모든 교육을 독점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되어 왔고, 학교는 지배계층의 지배수단으로 전락하여 교육의 본래 이념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였다.<sup>26)</sup> 따라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네스코(UNESC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교육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위촉하게 되었고 랭그랑은 이 연구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시한다. 이는 1965년 유네스코의 성인 발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교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있던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이 시작된다.

평생교육은 21세기를 맞이하여 더욱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를 정보사회로 정의하고 이전의 산업 시대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 짓는다. 즉 이전과는 다른 양상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산업 구조의 변화, 요구되는 인간상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 많은 변화들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만 지속되는 정규 교육만으로는 그 변화의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고, 제한적이고 경직된 공교육만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흐름에

---

26) 립영철·립광영, 전계서, p.24.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연한 교육과정을 가지는 평생교육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랭그랑은 오늘날 평생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유를 첫째, 인간의 이상·관습·개념의 가속도적 변화, 둘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 셋째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직업 구조의 변화, 넷째 정치의 변동 다섯째,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 처리 능력의 필요성 증대 여섯째, 여가의 증대와 활용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Lengrand, 1975).<sup>27)</sup>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평생 교육론을 대두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위의 요인에 비추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에 비해 유연한 교육과정을 가지는 평생교육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개인이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팽창하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점점 전문화되고 특수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체제에서 개인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은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은 개인이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받은 학교의 형식 교육을 보강하거나 형식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1999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은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평생학습사회’, 즉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

27) 권이종·이상오, 전제서, p.44, 재인용.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2. 평생교육으로서의 대학의 기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는 이전 시대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띠며 변화되고 있다. 교육의 개념 또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포함하게 된다. 21세기의 교육은 ‘교수’의 개념에서 ‘학습’의 개념으로 전형적인 형태로부터 비전형적인 형태로 그리고 ‘선발’의 형태로부터 ‘고객’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게도 과거와는 다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은 크게 학문탐구, 인간교육, 사회봉사의 세 가지 기능으로 나뉜다<sup>28)</sup>. 과거의 대학이 학문의 탐구에 치중해왔다면, 현대는 이 세 가지 기능 중 사회봉사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학의 기능과 체제가 학생 소비자 시대로 전화됨에 따라 다양화와 대중화에 대한 성인 중심대학(andraversity)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학 평생교육의 기본 방향도 확충, 고객중심, 그리고 매체형 대학(televersity)으로 바뀌고 있다.<sup>29)</sup>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들은 새로운 고객으로서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학 교육의 문호를 전폭적으로 개방해 대학의 사회봉사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학이 새로운 고객으로서의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대학 평생교육의 전문적 교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대중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제2의 대학 교육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

---

28) 최항석, 전개서, p.3.

29) 이현청, 21세기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세미나, 1994), pp.255-256.

하고 있다.<sup>30)</sup>

### 1) 대학에서의 성인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9세기 중엽부터 일어났으며, 영국의 대학확장(university extension)이 그 시초이다. 1873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시된 대학확장은 연구와 교수 활동을 대학 내에서 대학의 밖으로 확장시킨 교육이다. 대학확장은 캠브리지의 교수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대학의 틀을 벗어나 지역 사회 주민을 위한 교외 강좌(extra-mural studies)를 실시한 교육사업으로, 최초의 대학 평생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확장은 기존의 대학이 치중하던 ‘학문탐구’의 기능에서 벗어나 대학의 좋은 시설과 교육 자원을 사회와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봉사’의 기능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준 첫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개방(university open)은 대학이 대학의 시설과 강의를 사회에 개방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대학 교내·외를 막론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대학에 소속된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교육활동을 비롯하여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대개 학점제 또는 비학점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자문 등’을 말한다. 대학 성인교육(university adult education)은 성인교육으로서의 대학교육 기능 즉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써 대학확장이나 대학개방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학 평생교육이라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성인계속교육(adult continuing education)은 성인교육과 계속교육을 합한 개념으로 성인을 위한 교육 즉 일차적 의미의 학교교육 이후의 교

---

30) 권이종·이상오, 전제서, pp.273-274.

육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전국성인교육협회’ (NIAC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Education)와 미국의 ‘미국성인계속교육협회’ (AAACE: 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인계속교육은 성인교육에 계속교육의 개념을 추가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성인교육의 원래 개념이 주로 자유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성인계속교육은 교양 교육과 함께 직업 교육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sup>31)</sup>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학 평생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중 미국의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컬리지(Community College)의 효과적인 운영은 한국의 대학 평생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야간과 주말 강의 외에도 단기적인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직장인과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sup>32)</sup> 이는 아직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수업이 평일 낮 시간에 편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 평생교육 기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대학 평생교육의 발전

우리나라 대학은 1920년대 대학생이 주축이 된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 대학 당국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로 학생 단체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체

---

31) 김유신, 전게서, pp.21-24.

32) 최항석, 전게서, p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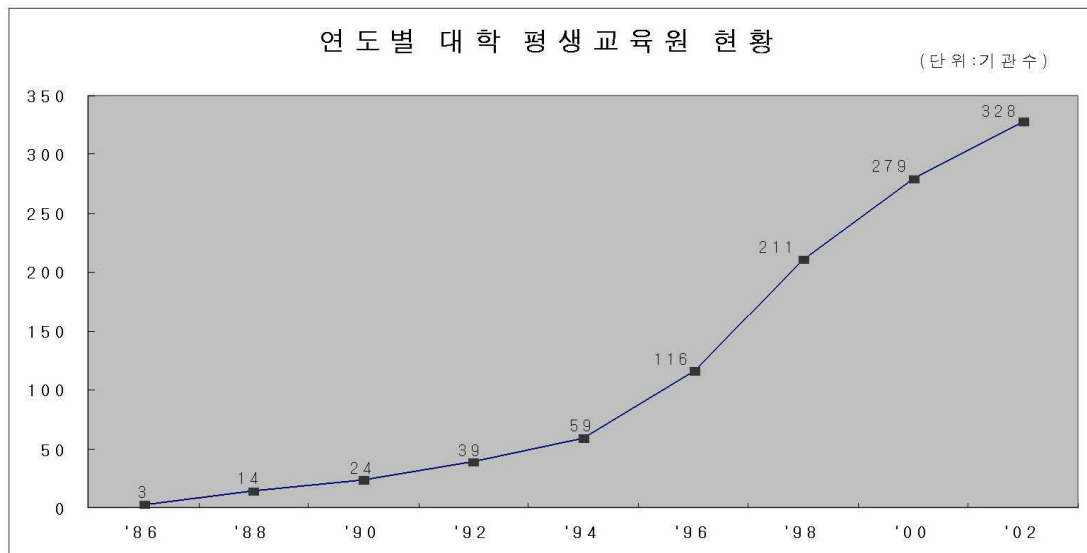
계적인 형태의 대학 평생교육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1968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사회교육교과를 개설한 이후 1971년에는 대구 계명대학교가 주부시민대학강좌를 개설하였으며, 1973년에는 신부대학강좌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학을 갈 기회를 상실하였으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대학이라는 기관 자체에 대한 열망이 큰 주부 및 미혼 여성들은 사회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타 지역의 대학들에게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sup>33)</sup>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는 평생교육을 위한 전담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기간과 교육 프로그램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한 두 개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 조항이 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이후 1982년 한국의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83년 9월에 사회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대학의 사회교육활동이 사회교육법 제 24조 제 1항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의무화 하면서, 대학의 평생교육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동대, 인천교육대학, 부산산업대학,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으며, 교육대상과 교육 프로그램 또한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기초교양 증진단계를 넘어 프로그램이 보다 전문화되고 전공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함으로써 이수 결과를 인정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sup>34)</sup> 한편 1988년도부터는 독학 학위제 실시로 독학학위 과정을 설치하

---

33) 김유신, 전게서, p.21-24.

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설치·운영되어 자격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1999년에는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두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2002년 집계결과 전국 328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연도별 대학 평생교육원 현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2002.11).

### 3.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음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는 했으나,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삶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기원전 중국의 공자는 「예기」에서 “예와 악(樂)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나 교육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잠깐만이라도 몸에서 떼 낼 수 없는 것이다” 라며, 음악

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플라톤은 음악의 내재된 질서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끼치므로 바른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음악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 존재해왔으며, 인간은 음악 경험을 통해 만족과 의미를 찾아왔다. 인간 소외, 급변하는 사회의 부적응 등의 문제를 앓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음악의 역할은 보다 다양해진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교육만으로는 모든 계층의 음악적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공교육의 제도에서 벗어난 성인기 학습자들의 음악적 수요는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대학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는 성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성인 발달의 개념과 함께 음악 교육에서의 성인 학습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음악에서의 성인 참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 1)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개념이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이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당시 미국의 음악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현대음악 프로젝트(CMP: Contemporary Music Project), 예일 세미나(Yale Seminar), 탕글우드 심포지움 등을 통해서였다. 35)

그 중에서도 탕글우드 심포지움은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1967년 열린 탕글우드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사회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예술과 음악에 직면한 중요한 안건

---

35) 김화수,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 음악교육 진흥의 필요성과 현장분석 연구: 서울 지역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20.

과 음악 교육에 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음악교육자·사회학자·과학자·교육자·회사·재단·정부의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이들은 ‘산업사회에 있어 개인과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과 예술의 가치, 독특한 기능은 무엇인가’, ‘이러한 잠재력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와 같은 쟁점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언급은 세 번째 항에 제시된다.<sup>36)</sup> “학교와 대학에서는 취학 전부터 성인, 평생 교육에 걸쳐 적절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평생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음악의 미적 가치와 비(非)미적인 가치, 음악 교육으로서의 가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음악의 미적 가치

예술은 생존 이상의 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동경하고 추구하는 인간 능력 구현의 표현이며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가장 인간적인 표징이다.<sup>37)</sup> 존 듀이와 수잔 랭거는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포괄적으로 인생에 관련된 느낌을 재경험하고,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주관적인 진실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즉 예술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인간은 예술을 통해 삶을 경험을 이해하고, 느낀다. 1980년대 중반부터 UNI(Unesco Institute of Education)는 데이브(Dave)의 주도하에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의 기초 영역”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교육받고 학습해야 할 기초 지식 영역들로 커뮤니케이션, 시민, 테크놀로지 등과 더불어 예술 영역을 선정하였다. 19세기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음악이란 “

36)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전게서, pp.29-30.

37) 전게서, p.55.

변형된 자연”이 이 세상을 초월하고 최종적인 의지(神)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8)</sup> 테이트(Tait)과 핵(Haack)은 음악이 물리적인 속성과 형식적인 속성, 심미적 속성을 지니며, 이들 속성의 체험이 개인에게 인간 현상을 탐색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와 안목을 제공한다고 언급한다.<sup>39)</sup> 이처럼 인간은 음악을 통해 평화로움이나 무거움, 호화감 등을 은유함으로써 인간적 현상을 내면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삶을 관조하기도 한다.

둘째, 음악을 통한 심미적 경험에 있다. 언어나 문자가 없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왔다. 인간이 만든 이러한 예술품을 통해서 인간은 심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심미적 경험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지 않고, 통찰력, 만족, 즐거움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둔다. 이것은 직접 경험되어 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한다.<sup>40)</sup> 인간은 음악을 통해 이러한 심미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험은 인간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음악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얻고, 그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정규 과정을 마치고 음악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은 성인들에게 음악을 듣고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음악적 참여를 통해 각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 (2) 음악의 비(非)미적 가치로서의 평생교육

음악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

---

38) Lenohard, C. and House, R, 전게서, p.52.

39)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p.63.

40)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전게서, pp.62-63.

(Ethos)론은 서양 음악과 음악교육에 상당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다. 1950년대 말 미국의 몇몇 교육자들이 음악의 비미적 가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으나, 현대에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음악의 비미적인 가치는 음악 교육의 전이 효과(transfer effects)와 취미로서의 가치, 사회적 가치 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음악 수업이 일반 학습의 능력을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울프(K. Wolf)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는다.

연구 조사로부터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음악 교육은 인지적 기술과 이해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전이, 즉 ‘배우는 방법을 아는 것’이나 특수 전이 둘 다에 적용되어 진다. 특수 전이는 특히 언어 분야에 적용 되어진다……. 음악 교육의 비음악적 결과에 연관된 대부분의 연구 조사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지만 실험 구성이나 실험 자체의 모호한 설명 때문에 유추된 결론은 일반적으로 강한 설득력이 없다.<sup>41)</sup>

둘째, 취미로서의 가치를 들 수 있다. 최근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정년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주 5일제 근무의 시행에 따라 여가 시간이 크게 증가 되고 있다. 음악은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sup>42)</sup> 음악 활동에 따른 긍정적인 정신적, 육체적 영향은 음악 평생교육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연구가들인 비그렌, 콜란, 요한슨은 약 13,000명 성인들의 문화적 활동을 조사하여 그 후 8년간의 흔적을 따라갔다. 통계학적으로 수많은 혼동적인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이들은 문화적 행사에 참석하고 책이나 정기 간행물을 읽고 음악을 창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사망률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했다.<sup>43)</sup> 또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

---

41)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전게서, pp.72-73.

42) 전게서, p.73.

43) Hookey, M., 전게서, p.203.

면 태교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린이의 정서발달, 심신의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모차르트 이펙트(Mozart Effect)’가 크게 유행하기도 했으며,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음악치료 또한 인간이 음악을 통해 다소의 심리학적인 이득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들 수 있다. 메리엄(Merriam)은 음악이 사회에서 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10가지로 설명했다. 10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정서의 표현, 미적 즐거움, 오락, 언어를 통한 통화가 아닌 특정 사회 내에서 이해되어지는 감정과 정서의 전달과 통화, 노래의 가사나 소리의 문화적 의미를 통한 상징, 인간 경험과 연결된 상징적 표현, 신체적 반응,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준거 일치 강화 기능, 사회적 체지와 종교 의식의 합법화, 문화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기여 기능,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응원가처럼 대중을 집합시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sup>44)</sup> 음악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정서(情緒) 표현의 기능과 미적 즐거움, 오락의 기능 등은 많은 성인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험이다. 음악이 가지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들에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코프만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음악 창작이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정신적 풍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음악 앙상블은 노인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며, 세대간의 음악 활동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음악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3) 음악 교육적 입장에서의 평생교육

---

44) Abeles, H. F., Hoffer, C. R. and Klotman, R. H. 『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 (서울: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1994), p.82.

음악교육에서의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심미적이고 문화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헉과 스미스는 ‘평생학습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평생교육의 전 과정, 활기 있는 교육과 새로운 시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탈 호수(CRYSTAR LAKE)의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신선한 수원을 공급하고 다시 채워 호수 전체로 확산시킨 데에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크리스탈 호수가 주는 교훈처럼 교육자는 신선한 교육의 원천과 재료, 견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체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견지해 새로운 교수법에 의한 도전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성취의 열쇠는 평생 학습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이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은 다양한 환경적인 면들에 의해 나타나는 여러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평생교육은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배움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결국 가르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이 다양한 환경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음악 교육자들에게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교육의 장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평생학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둘째는 기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컴퓨터는 다각도로 수업 중에 활용되고 있으며, 때문에 음악교육자들 역시 시류에 부합하

---

45) Smith, M., and Haack, P., 전제서, p.28.

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셋째, 각각의 과목들이 상호간에 유용할 때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듯이 음악 역시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교과 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음악 교육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지 주변부 과목에 그칠지는 음악 교사에게 달려있다. 넷째,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낸다. 즉 평생 교육을 받는 음악교육자들이 교육자로서 보다 높은 성취감과 깊이를 얻을 수 있다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교수법 향상의 질적인 측면은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질, 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질로 연결될 것이다.<sup>46)</sup>

## 2) 성인기의 음악교육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이므로, 성인발달의 기본적 개념과 교육에서의 성인 참여, 성인교육의 원리를 살펴보고 성인기의 음악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한다.

성인 발달이란 용어는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변화를 암시한다. 육체는 19세에서 26세 사이의 나이에서 최고의 육체적 성숙에 이르고 그 뒤에는 감각, 심장혈관, 근육체계, 뇌, 내부 장기 등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화 현상이 학습에 꼭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성인들의 인지적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반복함에 있어 나이와 관련된 쇠퇴 현상을 보인다. 말의 유창성, 언어 능력과 같은 기초적 정신 능력 등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되며, 보통 60세 이후에는 일상에서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70대 중반 이후에는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다. 이와는 반대로 구체화된 지능과 사

---

46) 전계서, pp.29-30.

고의 창출 등 더 높은 2차원의 정신 능력은 감소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특히 2차원의 지능 중 구체화된 지능(일생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문화적으로 획득된 지식과 추론에 기초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 된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일반적인 인지 능력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현상을 경험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정신능력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인교육은 성인의 지위·특성을 주요한 사회적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태도, 가치 및 기술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sup>47)</sup>으로 교육에서의 성인 참여는 다양한 형식적(formal), 비형식적(nonformal), 약식적(informal) 환경에서 관찰될 수 있다.<sup>48)</sup> 형식적(formal) 교육은 공간, 시간, 물질, 교사의 자질 등이 잘 정의된 구체화를 갖춘 지식·기술·태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 전달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학과 학교에서 발견되며 또한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작업장, 도서관, 박물관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비형식적(nonformal) 교육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면에서 형식적 교육과 유사하지만, 그것은 정규 교육기관 밖에서 발생하며, 종종 사회적 현상을 강조한다. 유동적이고, 덜 구조화되었으며, 덜 정규적인, 그리고 특별한 요구에 반응하기 때문에 비형식적 교육은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위해 모인 곳, 예를 들어 교회나 지역 센터 등에서 볼 수 있다. 약식적(informal) 교육은 취미와 자기 노력 등 또는 가족, 동료, 모임 회원 등과 교류하는 초기화 교육 등을 의미한다.

---

47) 최항석, 전게서, p.2.

48) Colletta, N. J.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In A. C. Tuijnman(Ed.)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adult education and training(2nd ed., pp. 22-27). New York: Elsevier Science, quoted in Hookey, M., 전게서, p.200.

수많은 학자들(Brookfield, 1986)은 성인학습의 일반적인 이론을 찾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해왔다. 비록 노울즈(Knowles)가 어린이들을 위한 교수법인 페다고지(pedagogy)와 성인을 위해 고안된 교수법을 구별하기 위해 미국에서 앤드라고지(andragogy)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키기는 했지만, 앤드라고지는 그것이 성인학습자들에 관한 가설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학습이론이 되지 않는 것이다. 브룩필드(Brookfield)는 노울즈의 이론을 확장하고 통합하여 성인학습자들의 6가지 특성을 제공한다. 브룩필드에 따르면, 성인은 (1) 그들이 삶의 과정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생을 통해 학습하고, (2) 다양한 학습 양식을 보여주며, (3) 구체적인 개인의 관심사에 적용되는 문제중심적 학습을 더 선호하고, (4) 과거의 경험에 더 영향을 받고, (5) 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학습자로서 그들 자신을 더 볼 필요가 있고, (6) 자기중심적 학습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sup>49)</sup>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관점은 성인이 유능함을 느끼고 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만 한다면, 성인은 학습에 있어서 독립적 파트너 또는 그들의 학습의 근본적인 설계자로 본다.

성인기의 음악 발전은 음악에 대한 어렸을 때의 긍정적인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유년기나 소년기 즉 초기의 음악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로보다(Sloboda)와 호위(Howe)는 음악 관련 평생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종종 음악 활동에 대한 지지적인 조건과 강렬하고 긍정적인 유소년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음악과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 성인들은 음악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보고했다. 부모, 형제, 동료, 직업 음악가, 선생님 등은 초기, 그리고 계속되는 음악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 또한 시몬톤(Simonton)은 연구를

---

49) Brookfield, S., *Understand and facilitating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1986), quoted in Hookey, M., 전제서, p.201.

통하여 작곡가들의 음악적 결과가 30~40대에 정점을 이루며, 30~40대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들의 선율적인 독창성은 약 56세까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인들의 음악 참여는 대부분 공동체 음악단체에의 참여에서 나타나므로 많은 연구들이 단체의 밴드나 합창단과 같은 단체들을 연구했다. 이 연구들은 성인음악가들에 관한 인구 통계라든지 음악적 배경, 음악적 선호도, 동기 등과 같은 정보와 음악 단체의 상세한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스미스(Smith)는 성인들을 위한 엘더호스텔(Elderhostel)<sup>50)</sup> 과정을 조사했으며, 또한 연구자들은 음악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을 행동과 태도 등에서 있음직한 차이점을 대조하기 위하여 여론 조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백분율에서부터 변수가 다양한 분석 등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양적인 기술에 의존해왔다. 이처럼 사람들이 음악경험에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자아표현, 레크레이션, 자기발전, 여가시간의 이용등과 같은 개인적 동기, 둘째 음악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 자아의 실현, 음악에 대해 좀 더 배우고자 하는 것 등과 같은 음악적 동기, 셋째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친구 되기, 소속감 획득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이다. 비록 개인적, 음악적 이유가 다른 것보다 자주 보고 되는 경향이 있지만, 어느 하나만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게이츠(Gates)는 음악 참여에 관한 논문을 재조사하여 성인 참여의 다른 수준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구별하는 6종류의 유형학을 제시했다. 이러한 6종류의 참가자들은 장난치는 사람,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 취미 생활자, 아마추어, 초심자, 전문가이다.<sup>51)</sup> 벨즈(Belz)와 홀름퀴스트(Holmquist), 치오도(Chiodo)는 연

---

50) 엘더호스텔(Elderhostel) : 대학에서 중년·노년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단기 집중 강좌를 운영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구를 통해 성인 참여자들은 어린시절과 청소년기의 음악참여자들의 확장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라르손(Larson)도 사례 연구를 통해 음악에 대한 흥미는 생의 초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에 확장되고, 종종 노년기에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웨덴 연구자들인 비그렌, 콜란, 요한슨 등은 거의 13,000명 성인들의 문화적 활동을 조사하여 그 후 8년간의 흔적을 따라갔다. 통계학적으로 수많은 혼동적인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그 연구자들은 문화적 행사에 참석하고 책이나 정기간행물을 읽고 음악을 창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사망률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했다. 코프만은 음악그룹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조사하고 인터뷰하여 음악창작이 노인들의 건강, 삶의 질, 정신적 풍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악양상블 또한 노인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적 발달에 기여한다. 수많은 연구들은 세대간의 음악 활동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음악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멀리(Mullee)의 연구는 성인교육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음악교육을 설계한 좋은 예이다. 그녀는 성인 음악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 첫째, 성인 학습자들이 그들의 배움에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교대로 그들의 생각을 결합하도록 독려하도록 해야 하며 둘째, 성인 학습자들이 배움보다는 경험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들이 서로에게 공급원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소규모 그룹 프로젝트와 토론 같은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sup>52)</sup> 한편, 마이어스(Myers)는 젊은이

---

51) Gates, J. T., Music Participation: Theory, research, and policy,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1991), 109, 1-35, quoted in Hookey, M., 전개서, p.202.

52) Mullee, M. A., Development of a workshop to improve adult music listening skills(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dge, 1996), Dissertation

들, 중년들, 노인들 중에서 음악프로그램의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마이어스는 학습 속도에서 나이와 관련된 감소에 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노년층에서 노래 멜로디에 대해 더 높은 사후 효과 성취와 만족도를 발견하였다. 게다가 노인들은 낮은 감각적 반응 점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반면에, 그들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였다.<sup>53)</sup>

음악 학습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엘퍼슨(Alperson), 첸(Chen), 아이리쉬(Irish), 먼로즈우(Monrouzeau) 등과 같은 연구자가 성인들의 음악 교수 학습 과정에 흥미를 갖고 연구하였다. 배움의 과정에 대해 흥미를 가진 연구자들은 보통 데이터 수집에 대해 질적인 접근에 의존해 왔다. 엘퍼슨은 수업을 관찰하고 녹화하였으며,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의 교사들과 참가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첸은 성인 피아노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향상된 음악적 성취에 따라 자아 인식이 자동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성인들이 종종 교사들의 의견에 결정을 맡기며 자발성은 수업 기간동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는 성인들의 자발성을 육성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즉흥적인 것을 수업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리쉬는 연구를 통해 성인들의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성인들은 비슷한 반응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라이백(Rybak)은 성공적인 그룹 음악 창작의 요소들을 분석하였고 콘다(Conda)는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노년 여성들을 위한 ‘

---

Abstracts International, 57, 2932A, quoted in Hookey, M., 전게서, p.204.

53) Myers, D. E.,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music learning in adults(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86),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47, 2071A, quoted in Hookey, M., 전게서,p.204.

교사 없는(teacherless)' 피아노 연주 클럽을 관찰하였다.

성인기는 변화의 과정이다. 육체적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생각의 과정과 생각하는 내용이 또한 변화한다. 성인 발달은 유년기의 의존성에서 성인기의 자유성으로의 이동하고 사회적 기대에서 내부 목표의 끊임 없는 조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어린 성인들은 중년기, 노년기의 성인들과 다르며, 각각의 그룹은 다른 전망과 삶의 전략을 구체화시킨다. 음악 연구자들은 성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심리사회적 발달이 그들이 무엇을 배울지, 언제 그것을 배울지, 어떻게 배우고자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들로 판단할 때, 음악교육자와 연구자들은 형식적 교육 외의 음악 평생 교육이 중요한 시도라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sup>54)</sup>

#### 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 분석

##### 1) 일반 과정 개설 교과목 비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가 실시된 6개 학교 평생교육원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일반과정, 전문·지도자 과정, 학점 은행제 과정으로 나누고 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편성 시간 등을 비교해 보았다(표 II-1, 표 II-2 참조).

---

54) Coffman, D., 전제서, pp.199-207.

<표Ⅱ-1> 학교별 일반과정 음악 프로그램 개설 교과목

학교명	개설 교과목	교육 기간	편성 요일	정원
단국대	교회음악 클래스 1,2 성악 교실1, 2 성악 마스터 클래스 1, 2 성악 실기(바리톤, 소프라노, 테너) 피아노 실기 현악 실기(바이올린, 첼로)	15주	수 금 목 화 월 화	15명 15명 15명 10명 10명 10명
덕성여대	합창	15주	목	50명
상명대	가곡 교실 플루트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폐강)	15주	수 월 ·	·
숭실대	성악 교회음악	15주	·	·
서울시립대	가곡교실 하모니카	15주	수 금	30명 30명
이화여대	테마가 있는 음악 여행 합창(E.C.코러스)	15주	수 금	· 20-80명

\* · 는 평생교육원 측에서 정확한 인원과 시간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이다.

### (1)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의 일반과정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교회음악 클래스, 성악 교실, 성악 마스터 클래스, 성악 실기(바리톤, 소프라노, 테너), 피아노 실기, 현악 실기(바이올린, 첼로)로 조사한 6개 학교 중 가장 많은 일반과정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개설된 프로그램은 연주 영역에 치중되어 있고, 이론 영역의 프로그램은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어, 개설과목의 지나친 편중이 나타난다. 반면 연주 영역의 프로그램에서는 가창 부분과 기악 연주 분야를 골고루 개설하고 있다.

### (2)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음악관련 교과목은 전문가 과정 내의 합창반이 있다. 그러나 합창반의 수강 대상이 합창에 관심 있는 여성으로, 참여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입학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이 과정은 여타 대학과는 다르게 주간과 야간에 각각 개설되며,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 좀 더 깊은 음악의 맛을 알게 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11만원(야간: 9만원)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며 총장 명의의 이수증이 나온다.

### (3)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의 일반 과정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가곡, 플루트,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이 개설되었으나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은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이 되었다. 상명대학교는 연주 영역과 이론 영역을 모두 개설했으나 이론 영역의 과목이 수강생의 부족으로 폐강되었다. 따라서 이론 영역의 강좌의 개설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개설할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 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은 서울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광화문 분교에 대부분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개설 강좌는 크게 서울학, 자치시민, 국제이해, 문화교양 부분으로 나뉘며, 그 중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문화교양 내에 있는 하모니카 연주와 가곡 교실이다.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의 문화교양 프로그램은 모두 35개로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음악과 관련된 강좌는 이 중 두 개 프로그램 뿐이다. 시립 평생교육원인만큼 학비는 60,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

#### (5)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일반 과정 음악 관련 개설 강좌는 교양 교육과정안에 들어있는데, 교양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교육과정 1과 2로 나뉜다. 그 중 교양교육과정 1의 테마가 있는 음악 여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학기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일반 과정 음악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정원은 30~50명이며, 학비는 한 학기에 180,000원이다. 또 하나의 일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합창(E.C 코러스)이다. 한 학기 단위로 강좌가 진행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는 한 학기에 270,000만원으로 운영된다.

학교별 프로그램은 연주와 이론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연주에는 가창과 기악이 포함되고 이론에는 음악이론 감상 등 음악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다. 우선 6개 대학의 일반 과정 개설 교과목을 살펴보면 연주 부분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개 학교 모두 합창, 교회음악, 가곡 교실, 성악 클래스 등 가창 영역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관현악기 등의 기악 영

역도 6개 학교 중 단국대·상명대·승실대·서울시립대의 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주를 제외한 창작이라든지, 음악이론, 감상 부분과 관련된 교과목은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명대의 경우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나 학생수의 부족으로 폐강되었고, 6개교 중 이화여대에서만 음악사와 음악 감상에 관련된 수업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의 프로그램은 주로 평일 낮 시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주말 강좌나 야간 강좌는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직업을 가진 일반인이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community college)가 평일 주간 강의는 물론이고 야간과 주말 강의를 개설하고, 단기적인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직장인과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 2) 전문·지도자 과정 개설과목

전문가와 지도자 과정은 6개 학교 중 단국대학교만이 전문가 과정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5개 학교는 전문가 과정과 지도자 과정이 개설되지 않았다.

단국대학교는 고든 음악 전문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든의 유아음악교육 이론을 실기에 직접 적용해보고, 오디에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을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은 30명이며 학비는 한 학기에 600,000원으로 일반교양과정의 수강료 보다는 비싼 편이다.

상명대학교의 200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어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나뉜다. 상명대학교는 교양교육과정에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과정에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았다. 아동 미술치료와 플라워샵 경영과 참여, 어린이 영어 지도사,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개설되지 않았다.

서울 시립대는 평생교육원 과정 자체에 전문가 과정이 없으며, 전문가 영역이 아닌 기초 교양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시립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교양, 외국어 회화, 서울학, 자치시민, 컴퓨터 등으로 과정이 나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03년 2학기에는 전문 피아노 지도자 과정과 아동의 음악치료 과정(전문가), 그리고 건반악기와 관현악기, 음악이론, 국악 등에 전문적인 실기과정이 개설되었으나 2004년 1학기에는 전문가 지도자 과정은 개설되지 않았다.

2004년 1학기에 개설된 음악관련 전문가·지도자 과정은 조사한 여섯 개의 학교 중 단국대학교에만 개설이 되었다. 일반과정의 음악교육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지도자 과정 교육의 부재는 일반과정에서 보다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좀 더 전문적 음악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 3) 학점은행제 과정

학점은행제 과정은 6개교 중 숭실대에만 개설되었다. 숭실대의 학점은행 과목과 선발 조건은 다음과 같다(표 II-2 참조).

<표 II-2> 숭실대학교 학점은행제 과정 개설교과목

세부 전공분야		모집	입시 과제곡		비고
Classic	성악	40명	-이탈리아 가곡 1곡(원어) -독일 가곡 1곡(원어)		-반주자 대동
	피아노	40명	-Etude 제외한 자유곡 1곡 -Etude 1곡		-자유곡을 소나타로 연주할 경우 빠른 악장만 연주
	관현악	40명	-자유곡(5분 이상 10분 이내)		-Cadenza가 있을 경우 제외
Comtemporary	교회음악	40명	보컬	-찬송가 410장 1절 -자유곡 1곡 -시창	-교회음악 공통사항* · 보컬은 악보 제공함 · 부속장치(엑세서리) 사용가능 · 세례자 증명서 1부 · 목회자 추천서 1부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시각장애인 일 경우 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첨부 (시창을 청음으로 대체 응시)
			피아노	-소나타 중 빠른 악장 -Free Style 곡 1곡 -초건	
			기악	-자유곡-시대적 장르, 스타일이 다른 두 곡 -시창 -드럼은 리듬 초건	
			작곡	-화성학 -작곡실기-주어진 동기 -기악실기- 자유곡1곡	
실용음악	40명	보컬	-자유곡 1곡		-실용음악 공통사항*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부속장치(엑세서리) 사용가능 · 기악분야에서 드럼으로 응시 할 경우 자유곡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연주
		기악	-자유곡 1곡-전공악기 연주		
		작곡	-자유곡 1곡 연주 -주어진 Chord에 의한 선율 작곡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sup>55)</sup> 2002년을 기준으로 볼때,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82개기관이며, 개설율은 76%정도이나 음악과 관련된 학점은행 프로그램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대학이 몇몇 과목을 학점 인정과목으로 두고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숭실대학교는 음악관련 전공을 모아 콘서트바토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의 음악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나 예정자 및 동등학력 이상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하게 되며 학원 설립 및 음악 실기 교사 자격을 갖게 된다. 다른 5개교에서도 학점은행제 과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으나, 숭실대학교에서만 음악 관련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의 음악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학부 수업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험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

55)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백서』 (서울:교육인적자원부,2002), p.36.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조사 대상, 조사 도구,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6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2004년 1학기 음악 프로그램 수강자이다. 연구대상의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 일반과정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일반과정이 개인레슨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은 제외하고 클래스 수업이 있는 6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양성이나 지도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설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6개 대학의 일반과정 음악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250부 중 20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무응답 설문 2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가 통계의 자료로 활용되었다. 회수율은 80.8%이며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표 Ⅲ-1 참조).

<표 III-1> 연구 대상

학교	과목명	n(명)
단국대	교회 음악 클래스	9
덕성여대	합창	42
상명대	가곡교실, 플루트	15
서울시립대	가곡교실, 하모니카	53
숭실대	교회 음악, 성악	53
이화여대	합창(E.C 코러스)	30
총	9 과목	202

##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크게 개인적 신상,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 교육과정 운영,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4문항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II-2 참조).

<표 III-2> 설문지 내용

내용		문항 내용	문항 번호	
1.일반적 사항	1)개인적 신상	(1) 성별	I-1	
		(2) 연령	I-2	
		(3) 학력	I-3	
		(4) 직업	I-4	
		(5)다른 평생교육의 유무	I-5~ I-5-2	
		(6)강좌의 수강인원	I-6	
		(7)강좌의 편성시간	I-7	
	2)평생교육 참여 이유	(1)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II-1	
		(2)대학부설기관에 참여한 이유	II-2	
	2.교육과정	1)교육내용	(1)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진행	III-1~III-1-1
			(2)강의의 내용	III-2
		2)교육 방법	(1)강사의 수업방식	III-3
			(2)강사의 수업형태	III-4
(3)활용매체			III-5~III-5-1	
3)만족도		(1)교육내용의 만족(불만)과 이유	III-6~III-6-2	
3.강사의 자질		1)성실도	(1)강사의 열의	IV-1
	(2)수업시간 준수		IV-2	
	2)자질	(1)수업에 관한 질문과 도움의 제공	IV-3	
		(2)흥미와 참여도 유발 위한 노력	IV-4~IV-4-1	
		(3)강사의 중요한 자질	IV-5	

<표 III-2> 이어서

4. 교육 과정 운영	1)수강생 선발	(1)선발 유무	V-1
		(2)선발조건외 방법	V-1-1
		(3)선발조건외 필요성 유무	V-1-1-2~V-1-2-2
		(4)수강인원의 적절성	V-2
	2)교육시간	(1)수업시간의 적절성	VI-1
		(2)편성시간의 적절성	VI-2
		3)적절하지 않았던 이유	VI-2-1
		(4)원하는 강의 시간	VI-2-2
	3)교육환경	(1)교육환경의 제공	VII-1
		(2)대학내의 시설 활용유무	VII-2~VII-2-2
		(3)대학내 시설 활용의 용이성	VII-3
	4)교육비	(1)교육비의 적절성	VIII-1
5.평가	1)평가	(1)수강생 평가의 유무	IX-1IX-1-1
		(2)강사 평가의 유무	IX-2~IX-2-2
	2)교육효과인식	(1)학습의욕의 증가 유무	X-1
		(2)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	X-2~X-2-1
6.문제점 및 개선방안	1)원하는 개설 과목	(1)원하는 개설과목	X-3
		(2)좋았던 점	X-4
	2)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X-5
		(2)개선방안	X-6

### 3. 자료 통계 처리

설문 조사 결과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했으며, 수강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연령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분석

### 1. 결과 분석

#### 1) 일반적 사항

##### (1) 개인적 신상

개인적 신상 사항에서 성별은 여자 86%(n=172), 남자 14%(n=28)로 여자가 현저하게 많았으며, 연령대는 20~39세가 전체의 29%(n=58), 40~59세가 전체의 39%(n=78), 60~79세가 전체의 32%(n=64)로 고르게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 학력은 대졸 39%(n=78), 고졸 28.5%(n=57), 대학 재학 20.5%(n=41), 기타 7%(n=14), 대학원졸 5%(n=10)의 순으로 본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대학부설 평생 교육원 음악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 사항은 주부 59%(n=118), 학생 26.5%(n=53), 전문직 12.5%(n=25), 자영업 2%(n=4)으로 주부들이 가장 많이 평생 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1~IV-7 참조).

##### ① 성별

음악 프로그램 수강생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86%가 여성이었으며, 14%가 남성으로 조사되어 여성의 비율의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표IV-1 참조).

<표 IV-1> 성별

응답	n(명)	%(백분율)
남	28	14.0
여	172	86.0
합계	200	100.0

② 연령

연령대는 20~39세가 전체의 29%(n=58), 40~59세가 전체의 39%(n=78), 60~79세가 전체의 32%(n=64)로 고르게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표 IV-2 참조).

<표 IV-2> 연령

응답	n	%
만 20-39세	58	29.0
만 40-59세	78	39.0
만 60-79세	64	32.0
합계	200	100.0

③ 최종학력

최종 학력은 대졸 39%(n=78), 고졸 28.5%(n=57), 대학 재학 20.5%(n=41), 기타 7%(n=14), 대학원졸 5%(n=1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V-3 참조). 본 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보웬과 스펜서의 연구(199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류, 중

상류층의 대학을 졸업한 전문가들이었다. 보웬의 연구에서도 합창 프로그램에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고, 반면에 밴드 프로그램은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보웬과 스펜서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남녀의 비율 차이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차이이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도의 차이는 아니다. 보웬의 연구에서 밴드 활동에서 남성들이 더 많은 참여를 보인다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에서의 남성의 활동은 미약하고, 남성이 주축이 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표 IV-3> 최종학력

응답	n	%
고졸	57	28.5
대재	41	20.5
대졸	78	39.0
대학원졸	10	5.0
기타	14	7.0
합계	200	100.0

④ 직업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직업은 주부가 59%(n=118)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5%(n=53), 전문직 12.5%(n=25), 자영업이 2%(n=4)로 조사되었다(표 IV-4 참조).

<표 IV-4> 직업

응답	n	%
학생	53	26.5
주부	118	59.0
자영업	4	2.0
기타	25	12.5
합계	200	100.0

⑤ 다른 평생교육의 참여

다른 평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있다’가 34.5%(n=69), ‘없다’가 65.5%(n=131)로 상당수의 응답자가 처음 평생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 참조).

<표 IV-5>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

응답	n	%
있다	69	34.5
없다	131	65.5
합계	200	100.0

⑤-1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

다른 평생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수강생들의 약 58%는 1~3회 정도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1 참조).

<표 IV-5-1>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

응답	n	%
1~3	40	58.0
4~6	22	31.9
7~10	4	5.8
11~13	3	4.3
합계	69	100.0

⑤-2 수강한 과목의 종류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 중 음악과 관련된 과목은 13%에 불과했으며, 약 70%의 수강생들은 음악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수강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한 후 음악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2 참조).

<표 IV-5-2> 수강한 과목의 종류

응답	n	%
음악과 관련된 과목	9	13.0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과목	49	71.9
기타	11	15.9
합계	69	100.0

⑥ 강좌의 수강인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 인원은 20~39명이 50.5%(n=101)로 가장 많았으며, 40~59명도 35.5%(n=71)나 차지했다. 수업 진행이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의 병행으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으로 보았을 때 한 클래스의 수업 인원이 많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표 IV-6 참조).

<표 IV-6>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 인원

응답	n	%
1~19명	25	12.5
20~39명	101	50.5
40~59명	71	35.5
60명 이상	3	1.5
합계	200	100.0

⑦ 강좌의 편성시간

수강생들의 현 강좌의 편성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다양했는데 주부의 수강률이 높은 것을 배려해 오후 시간 즉 12~18시 사이에 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조사한 과목 중 18시 이후에 편성된 강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에 편성된 강좌도 없어 직장인이 일반 음악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는 극히 부족하였다. 즉 평일 낮 시간대를 선호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인 주부와 학생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직장인들이 일반 음악 평생 교육에 참여할 기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표 IV-7 참조).

<표 IV-7> 현 강좌의 편성 시간

응답	n	%
오전 09~12시	34	17.0
오후 12~15시	92	46.0
오후 15시 18시	74	37.0
합계	200	100.0

(2) 평생교육 참여 이유

수강생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 ‘자신의 발전’ 과 ‘취

미와 교양 함양' 을 주로 응답하였으며, '수료증 취득' 을 위한 목적도 일부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 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좋은 시설과 지명도' 에 '우수한 강사의 질' 이라는 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로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가 약 60%(n=119)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취미와 교양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34.3%(n=68)를 차지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실현' 이나 '자기 발전' , '여가 선용' 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V-8 참조).

<표 IV-8>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응답	n	%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119	59.5
취미와 교양을 쌓기 위해서	68	34.3
수료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3	6.5
합계	200	100.0

② 대학부설의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한 이유

대학 부설 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사의 질이 우수해서'라는 대답이 40%(n=80), '대학의 좋은 시설과 지명도 때문에'가 26%(n=52)를 차지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나 '다른 기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각 13.5%(n=27)에 그쳐 대학이 다른 기관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표 IV-9참조).

<표 IV-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

응답	n	%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27	13.5
대학의 좋은 시설과 지명도 때문에	52	26.0
강사의 질이 우수해서	80	40.0
다른 기관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27	13.5
기타	14	7.0
합계	200	100.0

## 2) 교육과정

### (1) 교육 방법

#### ①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의 유무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약 88.5%(n=177)의 응답자들이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응답해 강사들의 성실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 IV-10 참조).

<표 IV-10> 강의 계획서에 따른 수업 진행의 유무

응답	n	%
예	177	88.5
아니오	23	11.5
합계	200	100.0

#### ①-1 강의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이유

표 IV-10에서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23명의 수강생은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학습자

의 비참여와 평생교육원의 미숙한 운영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생교육원 측에서 강의계획서를 제시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 강의 계획을 설명하거나 프린트로 제시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0-1 참조).

<표 IV-10-1> 강의계획서에 따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

응답	n	%
학습자의 비참여	6	26.1
평생교육원의 미숙한 운영	6	26.1
기타	11	47.8
합계	23	100.0

② 강의 내용의 이해

강사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전체 응답자의 1%(n=2) 정도를 보이고 있어 강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11 참조).

<표 IV-11> 강의 내용의 이해

응답	n	%
매우 그렇다	55	27.5
그렇다	98	49.5
보통이다	45	22.5
그렇지 않다	2	1.0
합계	200	100.0

(2) 교육 방법

① 강사의 수업 방법

강사의 대부분은 이론과 실기 수업의 병행을 강의 내용의 이해를 돕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실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해를 돕는 강사도 33%(n=66)나 차지했다(표 IV-12 참조).

<표 IV-12> 강사의 수업 방법

응답	n	%
이론 중심	9	4.5
이론과 실기의 병행	124	62.0
실기 중심	66	33.0
기타	1	.5
합계	200	100.0

② 강사의 수업 형태

강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강사의 수업 형태로는 그룹 수업이 57.5%(n=11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개별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여 강의하는 강사도 38%(n=76)로 상당수를 차지했다(표 IV-13 참조).

<표 IV-13> 강사의 수업 형태

응답	n	%
개별 수업	7	3.5
그룹 수업	112	57.5
개별 수업과 그룹 수업의 병행	76	38.0
기타	2	1.0
합계	200	100.0

③ 강사의 수업 매체 활용 정도

수업 매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가 각각 48%(n=96)와 52%(n=104)로 거의 비슷하게 차지했다(표 IV-14).

<표 IV-14> 강사의 수업매체 활용 정도

응답	n	%
예	96	48.0
아니오	104	52.0
합계	200	100.0

③-1 수업에 활용한 매체

표 IV-14에서 ‘예’라고 응답한 96명의 수강생들은 음반을 51.5%(n=70)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비디오와 DVD를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21%(n=29) 정도로 대부분의 강사들은 음반과 시청각 자료를 제외한 다른 기자재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사들은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 시청각 자료뿐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집, 녹음기, 신문 기사 등이 있었다(표 IV-15 참조).

<표 IV-15> 수업에 활용한 매체

응답	n	%
시청각 자료(비디오,DVD 등)	29	21.3
음반	70	51.5
과워포인트	6	4.4
빔 프로젝트	8	5.9
OHP	1	0.7
기타	22	16.7
전 체	136	100.0

### (3) 만족도

#### ① 교육 내용의 만족 여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로는 예가 88%(n=176), 아니오가 12%(n=24)로 긍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다수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V-16 참조).

<표 IV-16> 교육내용의 만족 여부

응답	n	%
예	176	88.8
아니오	24	12.0
합계	200	100.0

### 3) 강사의 자질

#### (1) 성실도

##### ① 강사는 열의

강사의 열의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79%(n=158)로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

다' 는 1.5%(n=3)로 상당히 적은 수의 응답을 차지해 강사가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7 참조).

<표 IV-17> 강사의 열의

응답	n	%
매우 그렇다	90	45.0
그렇다	68	34.0
보통이다	39	19.5
그렇지 않다	3	1.5
합계	200	100.0

② 수업시간의 준수

강사가 수업시간을 정확히 지켰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대답이 78%(n=156), 부정적 대답이 3%(n=6)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강사는 수업시간을 정확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참조).

<표 IV-18> 강사의 수업시간 준수

응답	n	%
매우 그렇다	86	43.0
그렇다	70	35.0
보통이다	38	19.0
그렇지 않다	6	3.0
합계	200	100.0

(2) 자질

① 강사에 대한 학습 도움 요청의 용이성

학습자가 수업에 대한 개별질문이나 도움을 구하기 쉬웠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 대답이 72.5%(n=145), 보통이 20%(n=40), 부정적 대답이

7.5%(n=15)로 긍정적인 대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즉 강사는 학습자의 질문이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19 참조).

<표 IV-19> 강사에 대한 학습 도움 요청의 용이성

응답	n	%
매우 그렇다	41	20.5
그렇다	104	52.0
보통이다	40	20.0
그렇지 않다	14	7.0
매우 그렇지 않다	1	.5
합계	200	100.0

②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한 강사의 노력 여부

강사의 수업 참여와 흥미도 유발에 대한 질문에는 ‘예’가 88.5%(n=177), ‘아니오’가 11.5%(n=23)로 긍정적인 대답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 것으로 보아 강사가 수업 참여와 흥미도 유발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표 IV-20 참조).

<표 IV-20>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한 강사의 노력 여부

응답	n	%
예	177	88.5
아니오	23	11.5
합계	200	100.0

②-1 흥미를 높이기 위해 강사가 사용한 방법

강사가 학습자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질 높은 수업의 전개’가 40.7%(n=72)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재미있는 지도 방법’이 22.6%(n=40)과 다양한 발표기회의 제공’, ‘칭찬’이 그 뒤를 이었다. 즉, ‘강사의 질 높은 수업’과 ‘재미있는 강의법’이 수강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이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표 IV-20-1 참조).

<표 IV-20-1> 흥미를 높이기 위해 강사가 사용한 방법

응답	n	%
다양한 발표기회의 제공	31	17.5
질 높은 수업의 전개	72	40.7
칭찬	28	15.8
재미있는 지도 방법	40	22.6
기타	6	3.4
합계	177	100.0

③ 강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

수강생은 강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열성적인 지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음악기술’,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등을 고르게 선택했다. 즉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참조).

<표 IV-21> 강사의 중요한 자질

응답	n	%
음악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49	24.5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음악 기술	55	27.5
열성적인 지도	65	32.5
능숙한 학습 지도 기술	30	15.0
기타	1	.5
합계	200	100.0

#### 4) 교육과정 운영

##### (1) 수강생 선발

###### ① 수강생 선발 조건의 유무

수강생의 선발 조건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가 63%(n=126), ‘예’가 37%(n=74)로 대다수는 선발조건 없이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2 참조).

<표 IV-22> 수강생 선발 조건의 유무

응답	n	%
예	74	37.0
아니오	126	63.0
합계	200	100.0

###### ② 선발 조건이 있는 경우 수강생의 선발 방법

선발 조건이 있다고 응답한 74명은, 대부분의 수강생은 수강 신청으로 선발되며, 서류와 면접을 시행해 선발하는 경우도 21.4%(n=15)를 차지했다(표 IV-23 참조).

<표 IV-23> 수강생의 선발 방법

응답	n	%
서류전형	2	2.7
서류와 면접	13	18.7
수강신청	43	56.0
기타	16	22.7
합계	74	100.0

②-1 선발 조건이 없는 경우 선발 조건의 필요성 여부

표 IV-23에서 선발 조건이 없다고 응답한 126명의 응답자들은 선발 조건의 필요성에 대해 67%(n=84)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긍정적인 대답의 33%(n=42) 보다 약 2배정도 많이 나타났다. 즉 선발 조건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표 IV-23-1 참조).

<표 IV-23-1> 선발 조건의 필요성 여부

응답	n	%
예	42	33.0
아니오	84	67.0
합계	126	100.0

②-1-1 선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V-23-1에서 ‘선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2명의 수강생들은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 요구’를 가장 많이 뽑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의 선발 기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차지했다. 즉 현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있는 수강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수강생들은 수준에 따른 수업을 원하면서도, 선발이

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표 IV-23-2 참조).

<표 IV-23-2> 선발조건이 필요한 이유

응답	n	%
수준별 수업이 요구되므로	32	75
지금의 모호한 선발 기준 때문에	10	25
합계	42	100.0

②-1-2 선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V-23-1에서 선발조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84명의 응답자들은 ‘평생교육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뽑았으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 우려’도 36.8%(n=31)로 상당수를 차지했다(표 IV-23-3 참조).

<표 IV-23-3> 선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	n	%
선뜻 참여하기 어려움	45	54.1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우려됨	31	36.8
기타	8	9.0
합계	84	100.0

③ 수강 인원의 적절성

강좌의 수강 인원 에 대한 의견으로는 84%(n=168)의 수강생들의 ‘적절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4 참조).

<표 IV-24> 수강인원의 적절성

응답	n	%
강좌의 내용에 비해 수강 인원이 많았다	19	9.5
수강 인원은 적절하였다	168	84.0
강좌의 내용에 비해 수강 인원이 적었다.	13	6.5
합계	200	100.0

(2) 교육시간

① 매 시간 진행되는 수업 시간의 적절성

수업 시간에 대한 수강생들의 대답으로는 역시 ‘적절하였다’가 82%(n=164)로 수업 시간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표 IV-25> 수업 시간의 적절성

응답	n	%
수업 내용에 비해 수업 시간이 길었다	14	7.0
수업 시간은 적절하였다	164	82.0
수업 내용에 비해 수업 시간이 부족했다	22	11.0
합계	200	100.0

② 편성시간 (오전·오후 등)의 적절성 유무

강좌의 편성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는 현 시간에 대해 85.5%(n=17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4.5%(n=2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강의 편성시간 또한 12시에서 18시로 수강생의 대다수를 차지

하는 주부 수강생을 배려하는 만큼 강의 시간 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표 IV-26 참조).

<표 IV-26> 편성 시간의 적절성 유무

응답	n	%
예	171	85.5
아니오	29	14.5
합계	125	100.0

③ 편성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강좌의 편성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는 현 시간에 대해 85.5%(n=17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4.5%(n=2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강의 편성시간 또한 12시에서 18시로 수강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부 수강생을 배려하는 만큼 강의 시간 편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표IV-27 참조).

<표IV-27> 편성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응답	n	%
직장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	1	3.4
수업이 특정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원하는 시간에 교육 받을 수 없다	15	51.7
기타	13	44.8
합계	29	100.0

④ 듣고 있는 강좌의 원하는 편성 시간

강의 시간대의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에게

원하는 시간대를 물어 보았는데, 평일 오전이 51.7%(n=15), 평일 오후가 41.4%(n=12)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부인 것을 감안해 보면, 주부의 여유 시간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표 IV-28 참조).

<표 IV-28> 원하는 편성 시간

응답	n	%
평일 오전	15	51.7
평일 오후	12	41.4
평일 저녁	1	3.4
주말	1	3.4
합계	29	100.0

### (3) 교육환경

#### ① 적절한 교육 시설의 제공 유무

학습에 필요한 교육 시설 제공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의견이 50.5%(n=101), ‘보통’이라는 응답이 33.5%(n=67),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16%(n=31)를 차지해 대체적으로 교육 시설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9 참조).

<표 IV-29> 적절한 교육 시설의 제공 유무

응답	n	%
매우 그렇다	30	15.0
그렇다	71	35.5
보통이다	67	33.5
그렇지 않다.	29	14.5
매우 그렇지 않다	3	1.5
합계	200	100.0

② 대학 내의 시설 활용 유무

대학 내의 시설 활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예’가 63.5%(n=127), ‘아니오’가 36.5%(n=73)를 차지해 절반이 넘는 수강생들은 대학 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30 참조).

<표 IV-30> 대학 내의 시설 활용 유무

응답	n	%
예	127	63.5
아니오	73	36.5
합계	200	100.0

②-1 활용하고 있는 대학 내의 시설

활용하고 있는 대학 내의 시설로는 시청각 자료실이 58.7%(n=108)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이 14.7%(n=27), 강의실은 7.6%(n=14)를 차지했다(표 IV-30-1 참조).

<표 IV-30-1> 활용하고 있는 대학 내의 시설

응답	n	%
도서관	27	14.7
강의실	14	7.6
시청각 자료실	108	58.7
연주홀	1	0.5
기타	34	18.5
전 체	184	100

②-2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필요한 시설

수강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는 ‘연주홀’이 28.8%(n=21)이 가장 많

있고 ‘시청각 자료실’ 과 ‘강의실’ 이 각각 26%(n=38), 도서관이 4.1%(n=3)를 차지했다. 여기에서는 기타가 15.1%(n=11)나 차지하는데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연습실’ 로 나타났다. 즉 음악 수업과 직접 관련된 연주홀과 연습실, 시청각 자료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0-2 참조).

<표 IV-30-2> 가장 필요한 시설

응답	n	%
도서관	3	4.1
강의실	19	26.0
시청각자료실	19	26.0
연주홀	21	28.8
기타	11	15.1
합계	73	100.0

### ③ 대학 내 시설 활용의 용이성

대학 내의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약 78%(n=156)가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2%(n=44)는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 로 시설 활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 참조).

<표 IV-31> 대학 내 시설 활용의 용이성

응답	n	%
매우 그렇다	16	8.0
그렇다	43	21.5
보통이다	97	48.5
그렇지 않다.	43	21.5
매우 그렇지 않다	1	.5
합계	200	100.0

#### (4) 교육비

##### ① 교육비의 적절성

교육비에 대해서는 62.5%(n=125)는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31%(n=62)의 응답자가 ‘비싸다’고 응답했고, 6%(n=12)는 ‘저렴하다’고 응답했다. 즉,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응답자가 ‘비싸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육비 조절을 생각해 볼 수 있다(표 IV-32 참조).

<표 IV-32> 교육비의 적절성

응답	n	%
비싸다	62	31.0
적절했다	125	62.5
저렴했다	12	6.0
기타	1	.5
합계	200	100.0

#### 5) 평가

##### (1) 평가

##### ① 수강생 평가의 유무

수강생에 대한 평가는 약 60%(n=118)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 40%(n=82)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약 1/4 정도의 수강생들이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IV-33 참조).

<표 IV-33> 수강생 평가의 유무

응답	n	%
예	118	59.0
아니오	82	41.0
합계	200	100.0

①-1 평가의 방식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평가는 학기말의 발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업 중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대답도 22.9%(n=27) 정도나 차지했다. 반면, ‘출석과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대답은 각각 14.4%(n=17)로 발표회가 가장 많은 평가 방법이 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시험이 없이 수업 중 교사의 평가나 출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37%(n=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질 높은 수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평가 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표 IV-33-1 참조).

<표 IV-33-1> 평가의 방식

응답	n	%
발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57	48.3
수업중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27	22.9
출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17	14.4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17	14.4
합계	118	100.0

② 강사 평가의 유무

강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가 71.5%(n=14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예’는 28.5%(n=57)의 비율을 차지해 강사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상당수가 대학 부설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 강사의 자질을 꼽고 있을 정도로 강사의 자질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정작 대학에서는 강사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수업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표 IV-34 참조).

<표 IV-34> 강사 평가의 유무

응답	n	%
예	57	28.5
아니오	143	71.5
합계	200	100.0

②-1 강사 평가시의 항목

평가 항목으로는 ‘교수 방법’ 이 33.3%(n=19), ‘지도 과목에 대한 전문성’ 이 26.3%(n=15), ‘성실도’ 가 21.1%(n=12), ‘기타’ 가 19.3%(n=11)로 두드러지는 항목의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표 IV-34-1 참조).

<표 IV-34-1> 강사 평가시의 항목

응답	n	%
지도과목에 대한 전문성	15	26.3
교수 방법	19	33.3
성실도	12	21.1
기타	11	19.3
합계	57	100.0

(2) 교육 효과 인식

① 학습 의욕의 증가 유무

수강 과목에 대한 학습의욕 반응은 64%(n=128)가 긍정적인 반응을, 2%(n=4)가 부정적인 반응을, 34%(n=68)는 평이한 반응을 보임으로 이 강의로 인해 학습의욕이 증대된 응답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5 참조).

<표 IV-35> 학습 의욕의 증가 유무

응답	n	%
매우 그렇다	44	22.0
그렇다	84	42.0
보통이다	68	34.0
그렇지 않다	3	1.5
매우 그렇지 않다	1	.5
합계	200	100.0

② 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

다음에도 이 수업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서는 ‘예’가 86.5%(n=173), ‘아니오’가 13.5%(n=27)로 긍정적인 의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참여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표 IV-36 참조).

<표 IV-36> 다음에 다시 참여할 의사

응답	n	%
예	173	86.5
아니오	27	13.5
합계	200	100.0

②-1 다시 참여하지 않는 이유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가 전체의 44.4%(n=12)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교육 환경과 수강료의 경제적인 문제’도 18.5%(n=8)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표 IV-36-1 참조).

<표 IV-36-1> 다시 참여하지 않는 이유

응답	n	%
수강료가 부담이 되어서	8	18.5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12	44.4
교육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18.5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4	14.8
기타	1	3.7
합계	27	100.0

## 6)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원하는 개설 과목

앞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악기 레슨, 반주법, 음악사, 음악이론, 공개레슨, 외국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강의, 녹음법 등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평생 교육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성악, 합창, 기악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IV-37 참조).

<표 IV-37> 원하는 개설 과목

순위	원하는 개설과목
1	악기
2	다양한 교과목
3	반주법
4	기타

### (2) 좋았던 점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발전에

대한 성취감과 음악을 통하여 느끼는 음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형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음악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 대한 충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즉 가곡과 클래식에 가까워 지게 되었다’, ‘음악을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생활의 활력을 준다’, ‘생활의 기쁨이 되었다’ 등 음악을 통한 긍정적 정서 함양과 음악적 체험을 통한 심미적 경험 등이 음악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은 좋은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적 동기 외에도 ‘자기 발전’, ‘여가 시간 이용’ 과 같은 개인적 동기의 실현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수의 응답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났다. 그밖에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 만나 활동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소속감 획득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의 충족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표 IV-38 참조).

<표 IV-38> 참여해서 좋았던 점

순위	좋았던 점
1	자기발전
2	원하는 배움에 참여하는 기쁨
3	음악에 대한 흥미를 느낌
4	좋은 질의 강사에게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짐
5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과의 즐거운 모임

### (3) 문제점

강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의 자체의 질 보다는 ‘음악실이 좀 더 넓었으면’, ‘연습실 부족’, ‘수강료에 비해 시설이 열악함’ 등 평생교육원의 열악한 시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의에 대한 문제점으

로는 레슨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평생교육의 운영 면에서 는 시간표의 편성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거나, 개설 과목의 부족, 학비의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표 IV-39 참조).

<표 IV-39> 문제점

순위	문제점
1	시설면
2	프로그램면
3	강사면
4	기타

#### (4) 개선방안

강좌의 개선 방안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고 이외에도 ‘중급반 과정의 개설’ 이나, ‘수업인원을 줄였으면’, ‘주 1회 수업을 2회 수업으로 늘려야 한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 등의 의견이 있었다(표 IV-40 참조).

<표 IV-40> 개선방안

순위	개선방안
1	학교의 적극적 지원
2	중급반 신설
3	알맞은 수업인원
4	강사의 자질 검증
5	기타

## 2. 연령에 따른 분석

여기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연령대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고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IV-41참조).

<표 IV-41> 연령별 분포

연령	n	%
20세~39세	58	29.0
40세~59세	78	39.0
60세~79세	64	32.0
합계	200	100.0

### 1) 일반적 사항

#### ① 평생교육 참여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대학부설기관의 선택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30대와 40~50대가 프로그램의 참여 이유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반면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취미와 교양 쌓기’를 프로그램에 한 주된 이유로 꼽아 연령 간 프로그램 선택의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려할 때, 연령계층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부설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20~30대가 ‘대학의 좋은 시설과 지명도 때문에’라고 응답한 반면 30대 이상의 응답자는 ‘강사의

질' 을 꼽아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표 IV-42 참조).

<표 IV-42> 평생교육 참여 이유

	연령대	***	
		값	유의확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	20~30대	62.782	*0.000
	40~50대		
	60~70대		
대학부설기관의 선택 이유	20~30대	15.806	*0.045
	40~50대		
	60~70대		

\*p<.05

## 2) 교육과정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강사가 이용한 다양한 매체,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연령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의계획서와 수업, 강의내용의 이해, 강사의 다양한 수업방식, 강사의 다양한 수업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교육과정 중 교육 내용의 만족도를 제외한 다른 질문 내용에는 연령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사의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20~30대는 '이론과 실기가 함께 진행되었다' 고 대부분 응답한 반면, '40대 이상은 이론과 실기가 병행되었다' 는 응답과 '실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는 답의 비율이 각각 50%를 차지한다. 강사의 수업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도 20~30대는 '개별 수업과 그룹수업이 병행되었다' 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그룹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20~30대 수강자와는 다른 응답을 보인다. 다양한 매체 사용의 유무에 대

한 질문에서는 20~30대 수강생들은 ‘그렇다’ 를 더 많이 선택했으나, 40대 이상의 수강생들은 ‘그렇지 않다’ 는 답을 더 많이 선택해 대조를 보인다(표 IV-43 참조).

<표 IV-43> 교육과정

	연령대	*2	
		값	유의확률
강의계획서와 수업	20~30대	7.749	*0.021
	40~50대		
	60~70대		
강의내용의 이해	20~30대	24.233	*0.000
	40~50대		
	60~70대		
강사의 다양한 수업방식	20~30대	43.896	*0.000
	40~50대		
	60~70대		
강사의 다양한 수업형태	20~30대	20.945	*0.002
	40~50대		
	60~70대		
강사가 이용한 다양한 매체	20~30대	10.379	*0.006
	40~50대		
	60~70대		
교육 내용의 만족도	20~30대	3.901	0.142
	40~50대		
	60~70대		

\*p<.05

### 3) 강사의 자질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강사의 학생 참여에 대한 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연령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사의 열의정도, 강사의 수업시간, 강사의 질문태도, 강사의 중요한 자질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강사

의 열의 정도와 수업 시간 준수에 대한 질문에 20~30대는 ‘그렇다’ 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40대 이상은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을 해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강사의 열의 정도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강사의 자질 면에서는 강사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령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44 참조).

<표 IV-44> 강사의 자질

	연령대	x <sup>2</sup>	
		값	유의확률
강사의 열의 정도	20~30대	24.264	*0.000
	40~50대		
	60~70대		
강사의 수업시간	20~30대	24.168	*0.000
	40~50대		
	60~70대		
강사의 질문태도	20~30대	24.888	*0.002
	40~50대		
	60~70대		
강사의 학생 참여에 대한 노력	20~30대	0.818	0.664
	40~50대		
	60~70대		
강사의 중요한 자질	20~30대	16.805	*0.032
	40~50대		
	60~70대		

\*p<.05

#### 4) 수강생의 선발

선발 조건의 유무, 선발조건의 필요성, 수강인원의 적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선발조건의 유무에 대해서 20~30대는 ‘있다’ 고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없다’ 고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즉 학생이 많이 속한 20~30대 그룹

은 시험이나 서류전형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주부가 대부분인 40대 이상 그룹의 수강생들은 대부분 시험 없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선발조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20~30대와 40대 이상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데 20~30대는 ‘선발조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반면 40대 이상 그룹은 ‘선발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즉 수강생의 선발에 관한 모든 항목은 연령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45 참조).

<표 IV-45> 수강생의 선발

	연령대	χ <sup>2</sup>	
		값	유의확률
선발조건의 유무	20~30대	18.581	*0.001
	40~50대		
	60~70대		
선발조건의 필요성	20~30대	22.107	*0.000
	40~50대		
	60~70대		
수강인원의 적절성	20~30대	9.567	*0.048
	40~50대		
	60~70대		

\*p<.05

#### 5) 교육과정 운영

##### ① 교육시간

적절한 수업시간, 강좌의 편성시간, 편성시간의 적절치 않은 이유, 적절치 않을 때의 희망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표 IV-46 참조).

<표 IV-46> 교육시간

	연령대	x <sup>2</sup>	
		값	유의확률
적절한 수업시간	20~30대	29.513	*0.000
	40~50대		
	60~70대		
강좌의 편성시간	20~30대	12.005	*0.017
	40~50대		
	60~70대		
편성시간의 적절치 않은 이유	20~30대	19.109	*0.004
	40~50대		
	60~70대		
적절치 않을 때의 희망시간	20~30대	18.471	*0.018
	40~50대		
	60~70대		

\*p<.05

② 교육환경

시설 활용의 용이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학습의 필요한 교육 시설의 제공, 대학 내 시설의 활용, 비 활용 시 이용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에 필요한 교육 시설 제공 면에서 20~30대는 ‘보통이다’ 라고 주로 응답했으며, 40대 이상은 ‘그렇다’ 라고 응답해 세 그룹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20~30대 응답자 중에는 ‘그렇지 않다’ 와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렇지 않다’ 고 대답한 사람도 긍정적으로 본 사람에 비해 훨씬 적어 교육 시설 제공 면에서 40대 이상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시설로는 20~30대가 시청각 자료실-기타-연주홀-강의실-도서관 순으로 필요 시설을 꼽았으며, 40-50대는 연주홀-강의실-시청각 자료실-도서관,기타 순으로, 60대 이상 수강생은 시청각 자료실-연주홀-강의

실-기타-도서관 순으로 필요 시설을 꼽아 연령대별로 요구되는 시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7 참조).

<표 IV-47> 교육환경

	연령대	x <sup>2</sup>	
		값	유의확률
학습의 필요한 교육시설의 제공	20~30대	45.640	*0.000
	40~50대		
	60~70대		
대학 내 시설의 활용	20~30대	12.915	*0.012
	40~50대		
	60~70대		
원하는 이용 시설	20~30대	29.073	*0.001
	40~50대		
	60~70대		
대학 내 시설활용의 용이성	20~30대	11.254	0.338
	40~50대		
	60~70대		

\*p<.05

### ③ 교육비

교육비의 적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연령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30대 응답자들은 총 58명의 응답자중 ‘비싸다’는 의견이 28명, ‘적절하다’는 의견이 26명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조금 많았으나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각 그룹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부들과 대부분 학생으로 이루어진 그룹의 인식 차이와 학생 그룹의 대부분이 대학과 비슷한 등록금을 내는 학점 은행제 과정 소속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8 참조).

<표 IV-48> 교육비

	연령대	x <sup>2</sup>	
		값	유의확률
교육비의 적절성	20~30대	15.175	*0.019
	40~50대		
	60~70대		

\* p<.05

5) 평가

① 교육효과에 대한 인식

다음 기회의 참여 유무는 통계적으로 볼 때 연령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강의를 통한 학습의욕의 증가 면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의욕의 증가 면에서는 20~30대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4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그렇다’를 가장 많이 선택해 40대 이상의 수강생들이 보다 더 큰 교육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표 IV-49 참조).

<표 IV-49> 평가

	연령대	x <sup>2</sup>	
		값	유의확률
강의를 통한 학습의욕의 증가	20~30대	16.135	*0.040
	40~50대		
	60~70대		
다음 기회의 참여 유무	20~30대	3.542	0.170
	40~50대		
	60~70대		

\*p<.05

### 3. 연구 분석 결과 요약

첫째, 일반적 사항 영역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대학을 졸업한 주부로 86%가 여자였으며 남성은 14%에 불과했다.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수강인원은 20~39명 사이가 50.0%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40~59명도 35%나 나타났다. 듣고 있는 강좌의 편성시간은 평일 오후 시간대(12~18시)가 83%로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대부분인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평생 교육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 ‘자신의 발전’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 기관을 선택한 이유로는 ‘강사의 질이 우수해서’라는 대답이 40%를 차지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다. 우선 교육 방법 면을 보면 ‘강의 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응답이 88.5%를 차지해 대체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강의 내용의 이해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90% 정도로 대부분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약 60%의 강사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강사가 사용한 수업 형태로는 그룹 수업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그룹 수업을 통한 이론과 실기의 병행 지도가 대체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는 약 48%가 수업 시간에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52%는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업 매체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음반이 5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비디오나 DVD가 21.3%를 차지한 반면 파워포인트

나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4.4%와 5.5%에 그쳤다.

셋째, 강사의 열의나 수업 시간 준수 등의 질문에도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강사도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인 ‘강사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중요한 자질로도 ‘열성적인 지도’가 32%, ‘전문적 음악기술’이 27.5%, 음악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24.5%로 고르게 선택해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수강생의 선발과 교육시간, 교육환경, 교육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맞게 62.5%의 수강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선발조건이 없이 수강한 응답자들은 선발조건 필요성에 대해서 70.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긍정적인 대답을 보인 응답자 보다 약 2.5배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선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강생들은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 요구’ (73.0%)를 가장 많이 뽑아 현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있는 수강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강좌의 편성시간에 대한 질문으로는 85.5%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편성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편성 시간으로는 평일 오전과 오후가 전체의 90% 이상으로 수강생의 대다수가 주부 수강생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환경 면을 살펴보면 적절한 교육 시설의 제공 유무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응답이 50.5%로 나타나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내의 시설 활용 유무도 ‘예’라고 답한 사람이 63.5%로 절반 이상의 수강생이 대학 내의 시설을 활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수업 후 평가 방법 및 내용을 보면 수강생에 대한 평가는 약 60%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약 40%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약 1/4정도의 수강생들이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방식으로는 ‘발표회’가 48.3%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수업 중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2.9%로 뒤를 이었고 특별한 시험 없이 ‘출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14.4%를 차지하였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대한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원하는 개설과목·좋았던 점·문제점·개선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악기 레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뒤이어 공개 레슨 음악이론 등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과 ‘반주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좋았던 점’으로 음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형성,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음악적 동기’에의 충족에 대한 만족감을 들었다. 이러한 ‘음악적 동기’ 외에도 ‘자기 발전’, ‘여가시간의 이용’과 같은 ‘개인적 동기’의 실현에 대한 만족감과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소속감의 획득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의 충족도 좋았던 점으로 꼽았다. 참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습실의 부족’이나 ‘좁은 강의실’ 등 평생교육원의 시설면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지적했으며, ‘개설과목의 부족’, ‘단순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와 강사에 대한 문제도 일부 지적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급반의 신설’과 ‘수업인원을 줄였으면’ 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곱째, 연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령간의 요구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대학부설기관을 선택한 이유, 교육과정, 강사의 자질 등에서 각각의 연령그룹은 서로 다른 응답을 보였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대학을 졸업한 주부로 직업과 성별 면에서 상당히 편중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교육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평생교육의 목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도 16주 주 1회를 기본으로 하는 일률적인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으로,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다만 수업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절반 정도만이 수업 시간에 매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강사의 매체 활용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 매체를 활용하는 강사의 절반이 음반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수업 매체 활용이 음반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셋째, 강사는 열의나 수업 시간 준수 등의 질문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강사도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의 수강생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이유인 ‘강사의 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사의 중요한 자질로도 ‘열성적인 지도’와 ‘전문적 음악기술’ 등을 고르게 선택해 어느 한 가지 기술이나 특성보다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멀티형 강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의 수강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선발 조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선발조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강생의 약 70%는 그 이유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현 수업에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이 있는 수강생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즉 수강생들은 수준에 따른 수업을 원하면서도 선발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생들은 강좌의 편성시간과 교육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문제점과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서 시설 면이 가장 많이 응답된 것으로 보아 강의실과 연습실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수업 후 평가 방법 및 내용을 보면 수강생의 평가는 약 60%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가 없이 수업을 마치는 경우도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질 높은 수업의 전개를 위해서는 좀 더 평가 면에 관심을 두어 수강생의 학습을 촉진 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수강생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과 프로그램 면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앞서서 교육 시설에 대체적으로 만족을 나타냈으나 잠재적으로는 강의실과 연습

실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창과 기악 연주에 치중되어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을 요구 하고 있으며 중급반의 신설과 같은 수준별 수업과 심화 수업에 대한 요구도 일부 조사되었다.

일곱째, 연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의 결과 많은 부분에서 연령간의 요구와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많은 부분에서 연령 집단간의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학부설 음악 프로그램의 일반과정은 16주 주1회를 기본으로 하는 일률적인 교육과정을 가지며, 대부분의 수강생이 주부이다 보니, 수업 시간 또한 평일 낮 시간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프로그램 참여자의 폭을 상당히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응답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노년기에 속하는 집단도 활발하게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 따라서 각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와 수준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며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하나의 음악 프로그램이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든지,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없어, 한 학기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일반 과정의 음악 프로그램도 좀 더 세분화하고, 연계적으로 구성하여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수준별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선발 조건이 있는 것에 대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시험에 의한 선발 보다는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이수를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 면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반 강의실에서 피아노만 설치하고 음악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원 시설이 필요하며, 음악 교육을 위한 별도의 음악실의 설치도 요구된다.

넷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 강사의 자질을 꼽고 있으나 실제로 강사에 대한 관리나 평가체제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강사는 성인의 음악적 발달이나 특징을 모른 채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어린이만이 아니라 성인을 가르치는 강사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워크숍과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가르치는데 안주하고 있으므로, 직접 다양한 평생교육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

다섯째, 국가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고령

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음악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음악의 가치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교육을 벗어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평생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유신 (2002). **여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목적과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화수 (1996).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 음악교육 진흥의 필요성과 현장 분석 연구: 서울지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노선영 (1999).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권이종·김승호·소창영 외 (2001), **평생교육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권이종·이상오 공저 (2001), **평생교육-이론편**, 서울: 교육과학사.
- 림영철·림광영 (2001), **평생교육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엄주정·김정호 (2001), **평생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서울.
- 여정희 (2002).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중심 평생교육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윤성은 (1998). **서울소재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 교육연구 제 16집, pp.1-33.
- 이현청 (1994), **21세기 한국 대학평생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세미나.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최항석 (2000). **성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개**

- 발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3(3). pp.1-15.
- 한상훈 (2001). 대학 평생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발전논총 22(2), pp.79-101.
- 허작 (2001). 성인교육과정 구성요소: 목표·내용·방법의 실제, 교육발전 20(1), pp.1-18.
- Abeles, H.F., Hoffer, & C. R., .Klotman, R. H. (1994), 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 서울 : 음악도서 삼호출판사.
- Donald L. Hamann (2000). *Getting the Big Picture*, Music Educators Journal; 87(3). pp. 17-18
- Hoffer, C. R. (1996),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Hookey, M.(2002). *Adult Education*. In Don D. Coffman (Eds), *New handbook of research o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pp.199-209.
- Lenohard, C., & House,R (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Roy Ernst (2001). *Music For Life*, Educators Journal; 88(1), pp.47-51.
- Smith, V. Michale & Haack, Paul, (2000). *The Long View of lifelong learning*, Music Educators Journal; 87(3), pp.28-33.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http://ncle.kedi.re.kr>
- <http://www.dankookcec.ac.kr>
- <http://www.duksung.ac.kr/~adult>
- <http://www.smu.ac.kr/dept/edu1>
- <http://www3.ssu.ac.kr/lle>

<http://campus.uos.ac.kr/uosedu/>

<http://home.ewha.ac.kr/~sce>

# ABSTRACT

## The Status of Music Education in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Yoon Jin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research aim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of music programs in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universities and of the improvement of them through investigating the status of the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et 250 participants in the annex lifelong education centers in 6 universities at Seoul reply a questionnaire, and perform statistic process using SPS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in the lifelong education are housewives, which means there is preponderance in participants' occupations and

genders. Time tables of the programs are biased to daytimes on weekdays. For this reason, the programs do not accommodate participants from various classes. The length of the educational courses is uniquely once a week during the whole 16 weeks of education.

Second, considering th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courses, and the courses proceed according to the syllabuses.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affirmatively abou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of the courses. However, for the use of educational media, only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that the educational media are used in class, which suggests a low degree of lecturers' use of the media.

Third, the lecturers have replied affirmatively to the questions about enthusiasm and observation of class time, which shows that they lead class faithfully, and that they satisfy the participants' expectation to the effect that the participants select the centers for the reason of the quality of lecturers.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appear to want versatile lecturers with high teaching quality talents rather than to want lecturers with a simple teaching technique and property.

Fourth, considering the management of courses, the centers let the applicants participate in the programs without any placement te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Most of the participants reply negatively about the necessity of entrance limitation, but 70% of those participants who replied affirmatively give the reason that classes should be div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participants. This

means that the participants want level-oriented class but show negative attitude to the entrance test. The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ime tables of the cours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but are not satisfied about the facilities such as lecture rooms and practice rooms.

Fifth, only 60% of the participants have replied that the evaluation is performed, which means that 40% of the courses proceed without evaluation. Thus, more interest should be attached to eval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lass.

Sixth, the participants point out the sides of facilities and programs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This result conflicts with their anterior replies but suggests that most of the participants are potentially not satisfied with lecture rooms and practice rooms. They also require more various music programs, but have negative attitudes against those programs biased to the part of singing and the performing instrument. Partly, there is need of level-oriented classes and deepened classes suc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level classes.

Seventh, as a result of cross analysis for investigation differences in ages, we find o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of requirements and degrees of satisfaction in many parts according the ages. In other words, groups of different ages show differences in many respects.

# 부 록

## 부 록 1          설문지

## 음악프로그램 수강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윤 진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음악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해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본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본 논문 작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음악 프로그램에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음악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윤 진 드림





주십시오.)

- ① 시청각 자료(비디오,DVD 등)\_\_\_    ② 음반                    ③ 파워포인트\_\_\_  
④ 빔 프로젝트\_\_\_                    ⑤ OHP\_\_\_                    ⑥ 기타(                    )

6. 교육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예(①이면 6-1로)                    ② 아니오(②이면 6-2로)

6-1.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2.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IV. 강사의 자질

1. 강사는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하셨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강사는 수업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학습자는 강사에게 수업에 관련한 개별 질문이나 도움을 구하기가 쉬웠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강사는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① 예 (①이면 4-1로)                    ② 아니오

4-1. 그렇다면, 강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 동기를 높였습니까?

- ① 다양한 발표기회의 제공  
② 질 높은 수업의 전개  
③ 칭찬  
④ 재미있는 지도 방법  
⑤ 기타(                    )

5. 강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악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②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 음악 기술



- ② 수업 시간은 적절하였다
- ③ 수업 내용에 비해 수업 시간이 부족했다
- ④ 기타( )

2. 이 강좌의 편성시간(오전·오후 등)이 적절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②이면 2-1~2-2로)

2-1. 편성시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
- ② 수업이 특정 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원하는 시간에 교육받을 수 없다
- ③ 기타( )

2-2. 그렇다면, 귀하는 일주일 중 어느 시간에 강의 받기를 원하십니까?

- ① 평일 오전
- ② 평일 오후
- ③ 평일 저녁
- ④ 주말

## VII. 교육 환경

1. 학습에 필요한 교육 시설이 잘 제공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대학 내의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①이면 2-1로)
- ② 아니오(②이면 2-2로)

2-1. 활용하고 있다면,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도서관\_\_\_
- ②강의실\_\_\_
- ③시청각 자료실\_\_\_
- ④연주홀\_\_\_
- ⑤기타( )

2-2.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도서관\_\_\_
- ②강의실\_\_\_
- ③시청각 자료실\_\_\_
- ④연주홀\_\_\_
- ⑤기타( )

3. 대학 내의 시설 활용이 용이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도서관과 같은 대학 내 시설 사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예: 평생교육원 학생증 소지)  
( )

### VIII. 교육비

1. 교육비는 적절하였습니까?  
 ① 교육비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② 교육비는 적절했다  
 ③ 교육비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다  
 ④ 기타

### IX. 평가

1. 수강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①이면 1-1로)                      ② 아니오

- 1-1.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발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② 수업 중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③ 출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④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강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①이면 2-1로)                      ② 아니오

- 2-1. 그렇다면 주로 어떤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지도 과목에 대한 전문성  
 ② 교수 방법  
 ③ 성실도  
 ④ 기타( )

### X.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1. 이 강의를 통해서 수강 과목에 대한 학습의욕이 증가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다음에도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②이면 2-1로)

2-1. 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강료가 부담이 되어서
- ②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 ③ 교육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④ 강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 ⑤ 기타

3. 앞으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과목인지 써주십시오  
(예: 가야금, 반주법)

( )

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았던 점을 적어주십시오.

---

5. 수강하신 강좌의 문제점에 대하여 써주십시오.

---

6. 이 강좌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써주십시오.

---

---